

40세 이전 원발성 폐암 환자의 치료 성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정경영, 홍기표, 김길동, 신화균, 박인규

배경 및 목적 : 40세 이전의 원발성 폐암은 41세 이상의 집단과 비교하여 예후가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수술후 예후에 관해서는 사례가 적은 관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전의 원발성 폐암 환자에서 임상적 특성, 수술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1990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한 원발성 폐암 환자 532명중 40세 이전의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성별, 술전 증상의 유무, 흡연력, 완전 절제의 여부, 수술 사망률, 세포형, 병기, 재발율, 장기 생존율 등을 같은 기간동안 수술한 41세 이상의 환자 501명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40세 이하의 환자를 Group 1, 41세 이상의 환자를 Group 2로 하였다. Group 1의 평균 연령은 35세였으며 30세 미만의 환자는 2명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23명(74.2%), 여자가 8명(25.8%)이었으며, Group 2에서는 남자가 414명(82.6%), 여자가 87명(17.4%)으로서 두 집단간에 성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34$). 술전 무증상의 환자는 Group 1이 10명(32.3%), Group 2가 70명(14%)으로 Group 1에서 무증상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6$). 흡연력은 Group 1에서 14명(45.2%), Group 2는 315명(62.9%)로서 Group 1에서 흡연자가 유의하게 적었다($P=0.049$). 병소의 완전 절제는 Group 1에서 22명(71%), Group 2는 407명(81.2%)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79$). 수술 사망률은 Group 1이 1명(3.2%), Group 2, 21명(4.2%)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93$). 병리 조직학적 소견으로 선암의 경우 Group 1이 15명(48.4%), Group 2 142명(28.3%)로서 Group 1에서 선암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병리학적 병기 III, IV가 차지하는 비율은 Group 1이 14명(45.1%), Group 2가 217명(43.3%)로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6$). 재발율에 있어서는 Group 1에서 재발한 환자가 12명(38.7%), Group 2가 182명(36.3%)로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89$).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는 Group 1의 생존 중앙값은 30.4개월, 5년 생존율은 47.8%였고, Group 2의 생존 중앙값은 27개월, 5년 생존율은 37.6%로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05$). Group 1내에서 성별, 흡연력, 선암의 여부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하여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909, 0.807, 0.462$).

결론 : 40세 이하의 원발성 폐암환자는 41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와 비교하여 성비는 차이가 없었고 술전 무증상이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흡연자는 적었다. 선암의 비율은 40세 이하의 집단에서 높았다. 병리학적 병기 III, IV 환자의 비율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생존율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40세 이하는 수술후 예후인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책임저자 : 정경영(연세대학교) 발표자 : 정경영(연세대학교)